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33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성경말씀	시편 51편 3~10절(구약 p.839)
암송구절	시편 51편 3~10절(구약 p.839)
찬 송	찬송가 252(통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536(통32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본 문 이 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은 시로서, 다윗의 철저한 죄의 고백과 죄 사함에 대한 간절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한 자신의 죄를 그대로 아뢰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려야하며,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죄악 때문입니다.

보충설명

‘중심’과 ‘내 은밀한 곳’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죄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그가 밋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은 간음과 탐심과 살인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삼하 12:13). 또한 십계명과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 죄에 대해 정결함을 얻기 위해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7절

-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 **우슬초입니다.**

보충설명

7~9절에서 다윗은 내면을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하다’(2절), 지우다(1, 9절), 씻다(7절)와 같은 동사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죄 용서와 영혼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8절). 특히 7절에 나오는 우슬초는 부정함을 없애는 의식에 사용되던 약초로,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고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레 14:4,6)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씻는 의식(민 19:18)등에 사용되었고, 유월절에 락을 인방에 뿌릴 때도 사용되었습니다(출 12:22).

3. 다윗은 자신을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10절

- 10절 하나님이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하나님입니다.**

보충설명

유대인들은 인간의 죄가 씻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이전의 삶을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회개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본성이 그 안에서 재창조됩니다(고후 5:17). 에스겔 선지자도 죄 씻음과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겔 36:25).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로 말미암아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 이야기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 「죄와 벌」을 보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사람들의 혈세를 먹고 사는 수전노 노파를 증오하다가 결국 살해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의 고통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을 읽으면 더욱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에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눔

- 나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기도

- 나의죄를 통회 자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적용

- 죄책감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